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무주 개최

# “무주~대구간 고속도 건설을”

제213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우현규) 월례회의가 지난 19일 무주군의회(의장 이한승) 주관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호텔티를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월례회의는 우현규 협의회장의 개회사 하성용 부군수의 환영사 이한승 의장의 인사말 협의회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의 안건으로(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후 채택 하였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정부는 새만금~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총 4개 구간으로 추진 중이면서 가장 긴 무주~대구 구간(86.1km)에 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 며, (포항~대구, 전주~무주 구간은 완공된 상태이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추진 중) 장기간 표류중일 경우 원래목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고속도로로 남게 될 것이 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서고속도로는 단순히 경제



19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위원들이 무주덕유산리조트 호텔티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 타당성 외 정책적으로 동서지역 상생과 화합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원 사업임을 고려해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적극 대상사업에 반영 시키고 조기에 착공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무주군의회 이 의장은 무주군

방문에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2017 무주 WI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 전북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북협의회 의장단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주=전문선기자

## 장수군,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추진

### 금강 등 9곳 144억 투입

장수군이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해 금강(천천면 용평리), 장계천(장계면 장계리), 백운천(반남면 동화리), 대성천(장수를 대성리), 신흥천(산서면 백운리), 말치천(반남면 국포리), 박곡천(천천면 월곡리), 장관천(천천면 장관리), 괴곡천(계남면 장안리)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축제 정비, 호안장비 등 사업을 전개기로 했다.

장수군은 2011년부터 장계천, 금강, 백운천 등의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장수군이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현재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괴곡천 등 소하천 6개소에 대해 신규사업을 발주했다. 군은 방재행정이 아닌 예방위주의

사업 시행으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만족도 100%, 수해 피해 0%(제로)에 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 6월 전까지 예산의 60%를 집행하고 우기 전 완료하는 등 사업의 조기집행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예산낭비 및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 뿐 아니라 각종 재해예방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사회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 만족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 개최 23개 사업 2억 3천만원 의결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최근 2016년 민선6기 교육단체별 맞춤형 교육지원에 위한 공모사업과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근

삼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16개교 38개 사업, 신청사업비 4억 6천2백8십만원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14개교 23개 사업,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특히, 공모사업은 민선6기 진안군차녀교육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특성화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 6개교 11개 프로그램에 6천5백4십만원, 중학교 3개교 4개프로그램에 3

천1백2십만원, 고등학교 3개교 5개프로그램 1억3백4십만원이다. 교육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주천초를 비롯한 3개교에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신장, 학교동아리운영, 진로교육, 특기적성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락밴드 및 지게차 운전 등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정월대보름맞이 전통놀이 다채

### 무주군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6개 읍면 63개 마을에서 개최됐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화합, 주민들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무주읍에서는 풍등 날리기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누푼면에서는 기찻놀이 등이 진행됐으며 설천면에서는 달집태우기가 적상면에서는 기원제 등이, 그리고 안성면에서는 윷놀이와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부남면에서는 디딜방아액막이 놀이 등이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민들은 “대보름 행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집총놀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며 보람을 느꼈다”며 “풍등 날리기와 기찻놀이, 디딜방아액막이 놀이 등 무주가 자랑하는 전통놀이들이 지역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로부터 마을의 명절로 여겨져 왔던 정월대보름날 무주군민들은 마을 별로 윷놀이 등을 즐기며



천막을 다지고 있으며 특히 윷마늘과 이렇기마늘이 마을의 상징인 농기(旗)로 세배를 주고받으며 화합을 다졌던 것을 재연한 무푼면내리 기찻놀이와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던 거리 기원제로, 1백 여 주민들의 춤과 제(祭)와 악(樂)이 어우러져 재미를 더하는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는 반딧불축제 등을 통해서도 선을 보이는 등 무주군 대표 전통놀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은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을 태우며 소원을 빌고 있다.

### 진안군

에서는 관내 23개소 마을에서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채로운 정월 대보름 행사를 가졌다.

전라좌도진안중평국보존회(회장 이승철)는 오전 11시 당산초등학교 마당밭이를 시작으로 진안읍 전역을 돌며 대보름을 알리는 흥겨운 농악가락으로 터를 울리며 진행되었다.

특히 마이산의 전망이 좋은 마이산 테마파크에서는 오후 6시부터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중평국의 터울림과 함께 의사당마을 어르신들이 준비한 5m 높이의 달집을 태우며 윷

한해의 액운을 날리고 소원을 빌며 참석자 모두 ‘방월이야’ 합성과 함께 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염원하였다.

이항로 군수는 “절차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옛 민속 문화의 맥을 잇고 공동체가 모여 한 해의 길운을 비는 군민 화합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 한해 우리 진안이 더욱 크게 융성하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 로컬투리스

### 완주군, '직소민원실' 개설

완주군 직소민원실 'Happy! 소통의 방'이 문을 연다.

완주군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직소민원실은 분청 4층 'Happy! 소통의 방'이란 명칭으로 운영되며, 민선6기 박성일 군수의 국정핵심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주민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완주군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소민원실은 방문민원 및 북학민원 등 일반창구에서 즉시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을 담당하게 되며, 이에 민원인이 군수와 직접 만나기 전 직소민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과 1:1 면담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주민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해 카페같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들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주도록 성심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기자

### 무주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무주군은 시설물 관리 주체(자재 또는 위탁)와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및 안전관리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은 생활 속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설물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하드웨어) 분야와 법·제도·관행 등의 비구조소프트웨어)분야까지 폭넓게 이뤄진다.

특히 구조물의 손상·균열·위험여부와 시설 안전기준의 적합성 범람에 따른 안전 관련 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영 상태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에 내실 계획이다.

군 안전재난과 김규영 안전총괄 담당은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신고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완주군, 신입공무원 30명 임용

완주군은 22일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3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은 신규공무원이 공직에 입문하는 첫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공직자로서의 출발을 가족들이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용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자녀들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자랑스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했으며, 신규공무원들은 그동안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가족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 편지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완주=이종복기자

### 장수경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19일, 불법력을 맞아 여가시간이 늘어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계면(상점, PC방, 노래방 등)일대를 돌며 야간 유해업소 계도·단속 활동에 나섰다.

장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청소년 상대 주류·담배 판매행위, PC방과 노래방 등의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묵인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쳤다.

또한 유해업소 계도·단속활동과 함께 학교폭력 발생 및 우범지역에 대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육청·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체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학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권박산업과  
063-430-2951